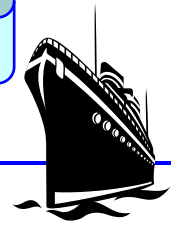


MSI Marine News

Topic

● 해상보험종합정보사이트 **MARINE@vi** 에도 꼭 방문 부탁 드립니다. (http://www.ms-ins.com/marine_navi/)



태국홍수 대책 현황

지난해 태국에 큰 피해를 입혔던 대홍수가 있는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태국 중부평원의 남북으로 약 400Km, 동서로 약 300Km 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이 침수되었고 아유타야에서 방콕북부에 걸친 지역도 물에 잠기는 바람에 총 7개의 공단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800 개 이상의 사업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장마 강우량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홍수대책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11 년도 홍수의 원인

지난해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각 공업단지의 방수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태국의 공업단지에서는 방수벽과 같은 홍수대책이 실시되고 있지 않았으며, 물이 넘치고 나서 급하게 토담을 설치하거나 흙을 쌓아 침수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외부로부터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수위가 토담을 넘어 단지 내부를 침수 시킨 것이 지난해 홍수 피해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 외에, 정부의 종합적인 침수대책지연이나 댐의 방류, 수문개방과 같은 인적 요소, 기상관측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정확한 강우예측이 어려웠던 점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태국 정부의 대책

이러한 원인들을 근거로 태국 정부에서는 홍수대책 단일기관으로 「SCWRM (*Strategic Committee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를 설치하고, 홍수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실시하고 있습니다. SCWRM 이 책정한 홍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대책

- 공단지역의 독 및 방수벽 설치
- 차오프라야강 하류지역 강바닥 준설
- 홍수대책으로 댐의 역할 변경
(종래 댐은 농업용 관개시설로 사용)

2) 중기 대책

- 예보 경보시스템의 고도화
- 도로의 입체화

3) 장기 대책

- 댐 · 저수지 신설



로자나공단지역에 건설중인 독과 방수벽
(건설개시 당시, 그 구조가 잘 보이도록 촬영)

3. 공단지역의 둑 및 방수벽 설치 상황

상기 여러 대책들 가운데 올해 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공업단지를 둘러싸는 둑과 방수벽입니다. 둑은 단지 조성면으로부터 2.5m의 높이까지 5m 정도의 폭으로 쌓아 올리게 되며, 방수벽은 길이 10m 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을 둑에 묻어 설치하여 단지 조성면으로부터 4m 높이까지의 침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각 공업단지에서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피해가 발생한 주요 공업단지에서의 공사 진척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 월 첫째 주 기준 진척율)

로자나: 96.0%	반바인: 75.4%	나와나콘: 96.9%
하이테크: 89.6%	반카디: 82.7%	

올해 장마 강우량은 작년과 비교하면 적은 양이지만, 평년과 대비하여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대홍수의 방아쇠가 된 댐의 저수율은 대략 60%~80%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9 월 28 일에는 방콕동부 랏카반의 공업단지 주변 운하가 범람하여 주변도로가 침수되는 등 앞으로의 강우량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재해의 교훈과 거기서 얻은 대책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